

현대가 만든 미래형 백화점... 자연공원서 힐링·쇼핑 '만끽'

'더현대 서울' 여의도 오픈

매장면적 줄이고 휴식 공간 확대
유리로 천장 제작, 보이드 기법 도입
"공원 위해 연 2000억 매출 포기"

커피를 마시다 고개를 들자 넓게 트인 파란 하늘이 보인다. 수백그루의 나무와 넝쿨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다 보면, 폭포 소리와 새소리가 들린다.

백화점 안에 공원이 통째로 들어왔다. 자연 채광 아래 다양한 식물들로 꾸며진 실내 조경, 그리고 1층 메인홀에 위치한 인공 폭포까지 '더현대 서울'은 그야말로 '자연을 담은 미래 백화점'이다.

26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24일 방문한 서울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픈 전부터 '서울지역 최대 규모' '파격'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만큼 소비자들의 기대도 컸을 터. 베일을 벗은 '더현대 서울'은 기대 그 이상이였다.

층마다 틈틈이 채워진 의자에는 오직 '휴식'을 취하기 위해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소비자들로 가득 찼다. 코로나19로 오픈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입점한 매장들을 체험하기 위한 소비자가 가득하다.

현대백화점은 ▲힐링 공간 확대를 통한 '리테일 테라피' 경험 제공 ▲'자연'을 콘셉트로 한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정식 개점을 앞두고 사전개점한 '더현대 서울'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정식 개점을 앞두고 사전개점한 '더현대 서울'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과 매장 구성 ▲큐레이션 방식으로 매장 배치해 쇼핑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더현대 서울'을 대한민국 서울의 대표 라이프스타일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공원 방벽케 하는 공간 구성

가장 큰 특징은 상품 판매 공간인 '매장 면적'을 줄이는 대신, 고객들이 편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객 동선을 넓힌 점이다. 이 때문에 마치 갤러리를 둘러보는 것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수를 더 늘릴 수 있었지만, 공원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 1500억~2000억원 어치의 매출을 포기했다. 고객들에게 휴식공간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현대 서울'의 오픈 후 1년간 매출목표는 6300억원이다. 그중에서 약

23%에서 30%의 매출을 포기하며 공간을 구성한 것.

'더현대 서울'의 전체 영업 면적(8만 9100㎡) 가운데 매장 면적(4만 5527㎡)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나머지 절반가량의 공간(49%)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 등으로 꾸몄다. 일반적인 현대백화점의 매장 면적 비중은 65%다.

천장은 모두 유리로 제작, 천장부터 1층까지 건물 전체를 오픈시키는 건축 기법(보이드 기법)을 도입해 고객은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1층에는 12m 높이의 인공 폭포가 조성된 '위더풀 가든(740㎡, 224평)'이 시선을 사로잡고, 5층에 들어서면 '더현대 서울'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내 녹색 공원 '사운즈 포레스트(약 3300㎡, 1000평)'가 있다. 천연 잔

디에 30여 그루의 나무와 다양한 꽃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백화점'

더현대는 위드(with)·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안전한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쇼핑 중 접촉 최소화를 위해 복도 폭도 최대 8m까지 구성했다. 식사 매장에는 비말 튀김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칸막이가 세워졌다. 백화점 내에서 이동시에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됐다. 커피를 마시면서 복도를 이동하자 직원이 다가와 "이곳에서는 이동 중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제지했다.

더현대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무인상담도 운영 중이다. 점원이 없는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는 사전에 결제수단과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뒤 물건을 집어 바

로 매장에서 나오면 된다. 5분 뒤 해당 제품은 자동으로 결제된다.

백화점 최초로 문화센터를 시작한 현대백화점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언택트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언제든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 내에 촬영시설까지 갖추었다.

코로나로부터 물리적으로도 안전을 기할 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도 예방하고 있다. 코로나로 여행이나 외부 출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 더현대 백화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과 힐링을 가능하게 한 것.

'사운즈포레스트'를 중심으로 5층과 6층은 문화·예술과 여가생활 그리고 식사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컬처 테마파크'로 조성했다. 6층에는 200여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알트원(ALT.1)'과 차세대 문화센터 'CH 1985(Culture House 1985)'이 들어선다. 식음료(F&B) 공간인 '그린돔(영업면적 1382㎡)'은 5층과 6층 두 개 층에 걸쳐 위치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대와 상황이 변하듯 백화점도 변해야 한다. 더현대 백화점보다는 고객의 휴식과 경험을 우선시한다"면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패턴을 고려해 쇼핑뿐 아니라 재미와 휴식의 경험을 주기 위해 그동안의 백화점과는 다른 콘셉트로 더현대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신원선·조효정 기자tree6834@metroseoul.co.kr

재건축 봄바람 부는 여의도... 14개 단지 신고가 행진

여의도 일대 아파트 안전진단 속도
분리재건축 행정소송은 과제로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전"으로 통화성공률 효과 UP

▶지원자격:
- 신임 / 경력
- 경력자우대(전직장소득보장)

▶담당업무:
상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지원접수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11
디프라이빙 23층 신한 용산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보지 않은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담당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숙증기를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직위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고등학생, 대학생 2차내 학자금(연4회)
- 1~18개월차까지 정액급여지원
- 매년 직급금 지급제도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월300~400만원대
- 상위명칭: 업계최고 고소득발생
* 수입은 내가 알고싶은 만큼 읽는 능력과 출중하다

4. 다른 회사도 많은데 꼭 신한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신한카드 마케팅 동고고대 대상으로 보합성분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가치를 사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 임연정 (문자환영)
010-3043-35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속도를 내면서 들쭉이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백화점 '더현대 서울' 오픈 등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24일 도시정비법제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는 16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삼부아파트(866가구), 시범아파트(1578가구), 미성아파트(577가구), 광장아파트(744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 등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목화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6일 최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으며 재건축을 확정했다. 예비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에서 A~E등급으로 나뉘는데, E등급(30점 이하)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현재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바로 조합설립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아파트는 다음달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과제는 있다. 광장아파트의 경우 분리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미성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 통과로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연우 기자



미성아파트의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 /정연우 기자

사업에서 제외된 1·2동 주민들과 영등포구청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구형 측

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자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며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광장아파트(전용면적 102㎡)는 지난

해 12월 19억1000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의 경우 19억2000만원~20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미성아파트(전용면적 101㎡)는 19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 면적형은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됐던 지난해 12월 19억4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범아파트(전용면적 79㎡) 역시 지난달 1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 시장 후보자들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함께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하며 최근 가격이 상승세다"라며 "재건축 외에도 철도망 신설과 상업시설 입점 등 각종 호재가 겹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GTX-B 노선 등 철도 구축 계획과 자연친화형 미래 백화점으로 불리는 '더현대 서울'의 오픈 소식은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여의도는 기존 지하철 5호선·9호선 외에도 경기 안산·시흥·화성을 연결하는 신안산선과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잇는 GTX-B노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예정됐으며 현대백화점이 선보이는 '더현대 서울'이 오는 26일 오픈을 앞두고 있어 여의도 일대 아파트 호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기자 yw964@